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속보) Bloomberg: 파월 의장, “필요하면 금리 인상하고 고금리 유지”
- Trading Economics: 8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69.6로 감소
- Bloomberg: 미 중립금리와 최종 금리는 무엇인가?
- Bloomberg: 미 연방 적자 전례없이 불어난다

[미국 금융]

- WSJ: 모기지율 무려 7.23%... 2001년 이래 최고치
- WSJ: 높은 주택 보험비용, 주택 판매에 타격

[운송]

- CNBC: 아시아 항만 컨테이너 선박 ‘휴무’... 수요 감소 탓

[글로벌 경제]

- Bloomberg: 글로벌 식량 동향: 3가지 변화, 무역 뒤흔들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저가 명품, 성장 더디고 전망도 어둡다
- Bloomberg: ChatGPT, 암 치료 조연 서비스 실패했다
- CNN Business: UAW, 오하이오주 전기차 배터리 근로자 임금 25% 인상
- CNBC: ‘Uber의 기후 및 자율 주행 목표 목표, 달성 가능’

[보고서]

- Harvard Business Review: AI로 고객과 더 긴밀한 관계 구축하는 방법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Powell Signals Fed Will Raise Rates If Needed, Keep Them High

파월 의장, “필요하면 금리 인상하고 고금리 유지”

- 연준 파월 의장은 오늘 금요일 가진 연준 잭슨홀 연례회의 기조 연설에서 “연준은 필요하다면 금리를 더 올릴 준비가 되어있으며 인플레이가 2% 목표의 길로 확실히 진입할 때까지 고금리를 유지할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 그는 인플레이가 정점에서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다면서 인플레이가 연준의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때까지 제약적인 (긴축적인) 수준의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 그는 팬데믹 이후 물가 상승을 제약한 긴축 통화정책과 공급 제약 완화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최근 양호한 인플레이 둔화 수치에도 불구하고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Bloomberg 기사

Trading Economics: United States Michigan Consumer Sentiment was lower

8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69.6로 감소

- 당초 예비치 71.2에서 최종치가 69.5로 조정되면서 낮아졌다. 향후 경제에 대한 기대 심리지수는 67.3에서 65.5, 그리고 현 경제에 대한 심리지수도 77.4에서 75.5로 감소했다.
- 반면에 올해 인플레이에 대한 기대심리는 3.3%에서 3.5%로 상향 조정되었고 향후 5년 전망은 2.9%에서 3%로 상향 되었다.
- 이번 발표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지난 3개월간의 경제의 빠른 성장이 완화되고 특히 인플레이 완화되었다”며 이들은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Trading Economics 기사

Bloomberg: What Are ‘Neutral’ and ‘Terminal’ Interest Rates?

미 중립금리와 최종 금리는 무엇인가?

- 중립금리는 통화정책이 경제 성장을 자극하지도 제한 하지도 않는 금리수준이다. 완전 고용과 안정된 인플레이에서 생산량이 계속 증가하는 수준이다.
- 중립 금리가 중요한 것은 경제 정책 방향의 기준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가 좋지 않을때는 금리를 중립 이하로 해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인플레이가 너무 높으면 반대의 조치를 취한다.
- 중립금리는 연준이 2012년에 4.25%, 그리고 계속 내려 올해 6월에는 대략 2.5%를 기록한다. 그러나 정확한 수치는 알수없다.
- 최종(terminal) 금리는 마지막으로 가장 높게 올리는 금리라고 할 수 있는데 연준 FOMC 참가자들의 추정치 평균수치는 2023년 5.6%로 최고치에 도달한 후에 2024년 4.6%, 2025년말에 3.4%로 하락을 예상한다. 현재 연준 관리들은 향후 수년간 금리를 중립 금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길 바라고 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Budget Deficits Are Exploding Like Never Before

미 연방 적자 전례없이 불어난다

- 미국 경제 전망이 양호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연방 예상 전망은 전례없이 위기 수준의 적자가 예상된다. 어떻게 알수 있나?
- 이번 주 벤치마크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007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이 4.3%를 보면 할수 있고, 또다른 차입 비용을 보면 30년 고정 모기지의 평균 이자율은 2년만에 처음으로 7%를 상회했다.

- 투자자들의 우려는, 연방의회 예산국이 예상한 재정적자 부족이 계속되면 금리가 더 올라갈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이자 부담 증가 때문에 공공재정에 압박이 더 가해질 수있다는 것이다.
- 연방 재무부는 국채 발행을 늘려 앞으로 여러 분기 동안에 공급 과잉을 예고하고 있고, Fitch는 미 국가신용등급을 놀랍게도 강등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WSJ: Mortgage Rates Hit 7.23%, Highest Since 2001 모기지율 무려 7.23%... 2001년 이래 최고치

- 이번주 주택 용자 모기지율이 20년만에 최고치를 보이면서 주택시장이 어두운 침체에서 벗어나기 더 힘들어진 상태에 있다.
- Freddie Mac이 어제 목요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0년 평균 고정 모기지율이 7.23%다. 일부 대출을 받는 이들은 더 높은 이자율을 지불하고 있고. 일주일 전에도 이자율은 작년 가을 이후 처음으로 7%를 넘어서 7.09%였다.
- 한마디로 전형적인 일반 주택을 구매하려면 이자가 수십만달러 더 드는 상황이다.
- 따라서 모기지 신청건수는 1995년 이래로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주택 매매활동을 컨베이어 벨트에 비유하자면 멈추어 선 형국이라는 것.

WSJ 기사

WSJ: Rising Insurance Costs Start to Hit Home Sales 높은 주택 보험비용, 주택 판매에 타격

- 플로리다에 허리케인도 그렇지만 주택 보험 비용에 대해 구매자들이 우려하게 됨에 따라 홍수나 산불 위험등이 위험도가 큰 지역에서 주택 매각 속도가 느려지고 있고, 일부의 경우는 거래가 취소되고 있다.
- 업계 단체인 보험정보연구소(III)에 따르면 플로리다 연평균 주택 보험료는 2019년 1천9백88불에서 5년 만에 세배 오른 6천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 물론 높은 보험료가 미국인들은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물려가는 막지는 못했다. 홍수나 화재 우려 보다도 낮은 세금, 저렴한 주택, 화창한 날씨를 더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WSJ 기사

[운송]

CNBC: Container ships are waiting at Asian ports as retailers struggle to shift excess stock**아시아 항만 컨테이너 선박 '휴무'... 수요 감소 탓**

- 분석가들에 따르면 올해 7월에 아시아와 유럽을 오가는 컨테이너 선박 운항 건수가 13개 건이나 결항 또는 취소되었다. 이런 추세는 향후 수개월 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이같은 부분적인 이유는 소매업체들 특히 의류나 전자 부분에서 많은 채고를 보유하고 있어서 아시아 생산품에 대한 수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름에 운송 교역도 약해지고 있어 전통적으로 휴가철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있다.
- 이로 인해 일부 선박들이 아시아에서 결항 또는 취소되어 항구에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CNBC 기사

[글로벌 경제]

Bloomberg: Global Food Roundup: Price Fears, Tensions and Climate Change Roil Trade**글로벌 식량 동향: 3가지 변화, 무역 뒤흔들다**

- **수출 제한:** 인도가 쌀 수출 추가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 인도 쌀 수출 약 3분의 1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세계 공급이 더 타이트해질 수 있다. 현재 쌀 가격은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도는 이미 백미 수출을 금지하고, 밀과 설탕, 일부 작물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 **국가 간 긴장도 무역을 위축시키고 있다.** 중국은 일본으로부터의 모든 해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처리된 방사성 폐수를 바다에 방류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해충 발견을 이유로 대만산 망고 수입도 중단했다. 이 또한 양국 간 긴장 고조 때문이다.
- **기후 변화:** 수위 감소로 인해 선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박은 농작물에서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처리하는 주요 운송 수단이다.
- **가격 상승:** 인도 양파 가격 상승은 최근 토마토 가격이 700% 급등한 것보다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인도는 양파에 40% 수출세를 부과하고 현지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판매할 계획이다. 양파는 토마토, 감자와 함께 인도인 식단에 제일 중요한 작물이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Coach and Michael Kors Tie-Up Shows Limits of Accessible Luxury 저가 명품, 성장 더디고 전망도 어둡다

- 저가에 속하는 명품은 고가 명품의 성장세에 비해 뚜렷하게 뒤처졌다. 또한 전망도 밝지 않다.
- “소비자들은 명품 쇼핑을 할 때 큰 가격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구매한다”며 “가격대보다는 정서적 유대감이 더 중요하다”고 Tapestry 최고 재무 책임자인 Scott Roe이 말했다.
- Coach 등 저가 명품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 Coach 브랜드를 소유한 Tapestry는 전 세계 명품 가죽 제품 시장의 점유율이 2017년 9.6%에서 2022년 7.6%로, Michael Kors 브랜드를 소유한 Capri Holdings는 8.6%에서 7.2%로 떨어졌다. Tory Burch와 Ralph Lauren도 시장 점유율을 잃었다.
- 반면 고가 명품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은 더 올랐다. 루이비통은 글로벌 명품 가죽 제품 시장 점유율을 2017년 22%에서 2022년 29%로, 구찌는 15%에서 18%로 올랐다. 에르메스와 샤넬, 프라다도 마찬가지.
- 스위스 시계 산업 연맹에 따르면 약 3천 4백불 이상 가격대의 스위스 시계 수출량은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에 27% 증가했다. 반면 228~569불 사이의 시계 판매량은 45% 감소했다.

WSJ 기사

Bloomberg: ChatGPT Fails at Recommending Cancer Treatment, Study Finds

ChatGPT, 암 치료 조언 서비스 실패했다

- 병원 Brigham and Women's Hospital 연구원들은 ChatGPT가 추천한 암 치료 법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
- 어제 목요일 JAMA 종양학 저널 연구에 따르면 부적절한 치료 권장 사항이 올바른 권장 사항과 섞여 있어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ChatGPT는 잘못된 정보와 올바른 정보를 혼합하여 설명해 잠재적으로 큰 위험이 있다”며 “전문가조차도 어떤 것이 잘못된 정보인지 식별하기 어렵다”고 연구 공동 저자인 Danielle Bitterman이 말했다.
- 연구진은 ChatGPT가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에 따른 권장 사항을 하나 이상 포함해 설명하지만, 잘못된 권장 사항도 3분의 1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응답의 약 12%는 가이드라인에 없는 권장 사항을 포함했다는 것.

WSJ 기사

CNN Business: UAW wins 25% raises for workers at Ohio EV battery plant

UAW, 오하이오주 전기차 배터리 근로자 임금 25% 인상 합의

-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이번주 목요일 GM 전기차 배터리 공장 근로자 임금 25% 인상 합의가 성공했다고 밝혔다.
- 노조는 이번 합의가 12월 23일까지 소급 적용되며, 근로자는 근무 시간에 따라 총 3천 불에서 7천 불의 수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오하이오주 워렌 공장에서 근무하는 약 1천 1백 명의 시간제 직원이 이번 합의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CNN Business 기사

CNBC: Where Uber's climate and autonomous driving goals will meet in the future

'Uber의 기후 및 자율 주행 목표 목표, 달성 가능'

- 우버는 2030년까지 미국 내 모든 차량을 전부 전기차로 전환할 것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 자율주행 차량의 발전이 빠르게 개선되고, 현금 흐름과 연간 수익성 등이 모두 맞물리면서 우버의 목표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분석가들은 전기차가 우버의 미래형 비즈니스 모델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전기 구동 자율주행차가 차량 호출에 더 많은 가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CFRA 리서치 애널리스트인 Angelo Zino에 따르면 모든 자율주행차는 전기차가 될 것이다. 운전자가 없기 때문에 고객이 내는 비용이 크게 내려갈 것이고, 이에 따라 차량 서비스 이용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CNBC 기사

[보고서]

HBR: Using AI to Build Stronger Connections with Customers

AI로 고객과 더 긴밀한 관계 구축하는 방법

- 스탠포드 대학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이 여러 국가 5천 2백 명의 고객 지원 상담원에게 AI 기반 대화형 지원 툴을 배포한 결과, 상담원 생산성을 14% 향상 시켰다. 게다가 상담원 월별 퇴사율은 9% 감소했다.

[고객 맞춤형 서비스]

- 고객을 우선으로 AI를 지향하기 위해선 객관적인 함수에 근본적 방향의 재고가 필요하다. 각 상호 작용 상황에서 더 많은 것을 학습시키고, 고객을 위해 더 많은 가치 창출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

- 예를 들어 बैं킹 및 결제 분야에서 개인 AI 디지털 비서를 사용한다. 캐나다 왕립은행은 고객의 디지털 자금 관리를 고객 맞춤형 서비스로 지원하기 위해 NOMI라는 AI 디지털 비서를 사용한다. 이는 고객에게 팁, 개인화된 예산, 지출 행동과 현금 흐름에 따른 저축 추천 등의 기능이 있다.
- 출시 후 1년 동안 전체 고객 기반에 비해 노미 고객의 디지털 상호 작용이 50% 더 많았고, 금융 계좌에 소비하는 시간이 93% 더 많았다. 노미 고객의 이탈률은 2%인 반면, 동급 고객의 이탈률은 8%에 달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직원 지원]

- AI를 직원 지원에 사용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객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관리자에게 다음에 말할 대화 내용을 제안하거나,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고객과의 수금 처리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제공한다.
- 또한 직원을 위한 표준 운영 절차에 AI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로, 고객의 문의를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상담원을 예측해 해당 직원에게 연결시키는 것 등이다.
- 소매업과 같은 일부 산업에서는 고객에게 자동화된 직접 소통을 지원하는 AI의 사용이 시작되고 있다. 봇은 고객과 소통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될 것이다. 이를 잘 활용하면 전반적인 경험을 완전히 재구성할 수도 있다.

번역: 임세민

HBR 원문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추가 금리인상 vs 동결'...美연준의장 잭슨홀 메시지 향방은?

**충격적 메시지 없지만 향후 경제지표 따른 추가 금리인상 여지 남길 듯
시장선 중립금리 논쟁 한창...연준 내부도 금리정책 견해 다양
일각선 내년에 추가 금리인상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와**

25일(현지시간)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리는 경제정책 심포지엄(잭슨홀 미팅)에서 행해질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기조연설을 앞두고 연준 내부와 시장 안팎에서 다양한 분석과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파월은 기조연설에서 1년 전과 달리 시장에 충격적인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겠지만 추가 금리인상을 배제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연준 내부에서도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